

## 주한아세안대사단과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교역 확대, 한-아세안 FTA 개선,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8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한아세안대사단(ASEAN Committee in Seoul, ACS)은 아세안 11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주한대사로 구성

이번 간담회는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인 아세안과 무역 확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아세안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교역(25) : 1위 중국(2,728억불), 2위 아세안(2,047억불), 3위 미국(1,963억불)으로  
對아세안 교역은 우리나라 총 교역(1조 3,412억불)의 15.3%를 차지

먼저 양측은 무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세안은 한국의 경제·통상 핵심 파트너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장으로, 양측은 현재의 교역 수준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여 본부장은 최근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한-아세안 FTA에 반영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세안 창립 60주년이자 한-아세안 FTA 발효 20주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시 3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과 아세안은 일방적 교역 관계가 아닌 상호 공급자이자 수요자로 연결된 긴밀한 파트너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 아세안과 교역 확대, 한-아세안 FTA 개선, 공급망 협력 등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끝.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이소라 (044-203-5679)

